

**일. 고난 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**

- ❖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위로에 관해 가장 폭넓게 다룬 서신입니다. 당시 고린도 교회는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,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를 읽고 교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.
- ❖ 그러나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“하나님의 뜻”이었고(고후 7:10), 바울은 그들이 근심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받기를 원했습니다.
- ❖ 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(고후 1:8-10)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고,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(고후 1:6).
- ❖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;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되살려주고; 고난을 견디도록 돕고; 영적으로 성숙하게 함;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격려함;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로합니다.

**이. 사역의 거룩함과 진실됨**

- ❖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불품없고(약하고)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업신여겼습니다(고후 10:10).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응하고 자신의 지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변호해야 했습니다.
- ❖ 한 개인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(엡 3:8).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양심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(고후 1:12).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그 외의 행실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(순결)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.
- ❖ 따라서 바울의 글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었습니다. 그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으며,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이 바울의 의도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(고후 1:13-14).

**삼. 지혜롭게 처신함**

- ❖ 1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(고전 16:5-11):  
에베소 → 마게도니아 → 고린도 → 유다.
- ❖ 그 후에 보낸 편지(현재 소실됨, 고후. 7:8)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두 번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(고후. 1:15-16):  
에베소 → 고린도 → 마게도니아 → 고린도 → 유다.
- ❖ 그러나 그는 고린도에 먼저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(고후 1:23).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바울이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고 비난했습니다. 그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?
- ❖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만날 경우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고, 이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(고후 2:1-4).

**사. 용서와 회복**

- ❖ 바울은 드로아로 향했고 디도는 고린도로 갔습니다.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. 그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줄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(고후 2:12-13).
- ❖ 얼마 후, 디도는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.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(고후 7:5-9, 13-16).
- ❖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교회 내의 징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사도의 지시에 따라 책망을 받았고,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 단계, 즉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(고후 2:5-11).

**오. 그리스도의 향기**

- ❖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도록 “문”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외칩니다. “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”(고후 2:14).
- ❖ 사방에 퍼지는 향기처럼,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영혼들에게 퍼져 나갑니다. 이 향기는 우리에게 그러하듯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(고후 2:15-16).
- ❖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며,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(고후 2:17).